사회=기현호
〈광주일보 편집국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이춘문
〈광주시의원〉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

채종순
〈광주 광산구의원〉

김만곤
〈전 광주 남구의원〉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6·4지방선거 광주·전남의 선택' 정책토론회

"정치개혁·인재발굴에 호남정치 미래 있다"

호남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정치개혁과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번 6·4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지역 리더들은 "정책선거 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6·4 지방선거 2014 광주·전남의 선택'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지역 전문가집단다운 날카로운 지적과 명쾌한 해법 등이 제시됐다. 토론은 광주일보 기현호 편집국장의 사회로 '호남정치 이대로 좋은가?' '정책공약 매니페스토로 지역 현안 해결' 등 2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신우철 전 진도부군수, 노희용 동구청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광주시의회 이춘문 의원, 김만곤 전 광주 남구의회 의원, 김성숙 전 시의원, 광산구의회 채종순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원우들이 호남정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천제 나쁜게 아니라 과정 투명 못한게 나빠

무공천 방침따라 매니페스토 실천 중요해져

▲신우철=과거 호남은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이끌어왔다. 이 때문에 '신뢰의 정치, 비전의 정치'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호남정치는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을 통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정치인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뜻을 철저히 담아내는 민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남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인재 발굴도 필요하다.

▲이춘문=무엇보다 생활정치가 중요하다. 주민들의 삶과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지역 정가가 혼란에 빠졌다. 정당공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공천을 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게 나쁜 것이다. 이를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무작정 정당공천을 없애 현직 단체장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공천을 하는 새누리당과의 경쟁도 불리해졌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김만곤=호남정치가 그동안 위상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추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인구 역전에 따라 더욱 위상이 위태로울 것이다. 호남정치의 기반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교육 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지난 대선 패배는 민생과 복지에 관심이 많은 50~60대를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 국민이 뜻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민심을 얻고 공감하는 정치를 해야 호남정치의 미래가 있다.

▲노희용=매니페스토는 선거 공약에 목표, 우선 순위, 재원,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지역주의, 혈연·학연, 이미지 등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하다. 또 거짓말하는 정치의 종결과 인신공격, 흑색비방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정치혐오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매니페스토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이 앞장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매니페스토를 실천해야 한다. 동구의 경우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효과 극대화와 노후화된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재생 등의 현안 사업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

▲김성숙=매니페스토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다. 빈 공약을 남발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주민 의사는 얼마나 포함됐는가를 공약에 반영해야 하는 시대다. 후보자들이 당선에만 골몰하지 말고, 지역을 살펴서 그 지역을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것인가를 먼저 검토하면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지역 유권자는 정치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다,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거짓말 정치를 불식시키는 후보들이 나와야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채종순=선거는 유권자에게 입후보자가 약속을 하는 것이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내는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는 것인지를 유권자는 판단한다. 후보자 스스로 선심성 공약인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시민들이 행복해 할 것인지를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등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 위한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과기원에 '해수담수화 연구센터'

오늘 개원 … 7년간 35억 지원 받아 해외시장 진출

국내 해수담수화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GDRC)'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과기원 해림홀에서 주요 내빈과 관련 분야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과학기술원 김영준 총장을 비롯해 강운태 광주시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재붕 원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경전 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국내 물, 환경, 플랜트 분야 학회 및 협회장,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임원진 등 재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광주과기원은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을 캠퍼스 안에 두고 지난 7년 동안 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새로 문을 여는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의 운영도 총괄할 예정이다.

광주과기원은 총 1800억원이 투입된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해 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인 Lux Research사가 발표한 '세계 우수 물 연구기관 조사 평가'에서 세계 7위의 우수 물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는 올해 8월 사업을 마무리할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단의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융합·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세계 해수담수화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그동안 형성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긴밀히 구축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내 담수화 기술의 허브이자 국제적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까지 7년간 35억원의 예산을 '글로벌 담수화 연구센터'에 지원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긴급복지 조사… 위기가구 3333가구 발굴

찾아가서 발굴해보니 3333가구에 달하는 위기가구가 전남지역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 1~2월 긴급복지를 신청한 1020가구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전남도는 2일 "지난 2월 서울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3월 한 달간 긴급복지 발굴·지원 특별조사를 벌여 위기가구 3333건을 발굴, 이 중 2391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한 달간 공무원, 이통반장, 지역주민, 우편집배원, 음료배달원, 새마을부녀회 등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 단수·단가스, 기초수급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과다 채무 등으로 생계 곤란, 임신 등으로 소득활동 곤란 등의 사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등을 발굴했다.

발굴된 가구 중 288가구에 1억5600만원을 긴급지원하고, 435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491가구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지원하고, 60가구는 바우처 사업인 사회서비스로 연계했다. 또 1117가구는 민간 후원으로 연계했다. 804건은 소득 조회 등 심사 진행 중이고 138건은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긴급지원 가구 중 107가구에는 생계비 6400만원, 60가구에 의료비 7400만원, 9가구에 주거비 200만원, 5가구에 교육비 300만원, 기타 107가구에 출산 지원비 등 1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주 추락 무인항공기 북한산 추정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2일 밝혔다.

이런 분석은 무인기 부속품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2곳에서 표기되어 있고 무인기가 북쪽에서 날아와 서울 상공을 비행한 뒤 다시 북쪽으로 비행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무인기의 엔진 배터리에는 '사용중지 날자 2014.6.25'라는 한글과 숫자가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날자'는 날짜를 뜻하는 북한말이다. '기용날자 2013.6.25'라는 말도 표기됐다. 이는 제품을 사용한 날짜를 뜻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에 쓰인 '1번'과 같이 북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물체에는 숫자가 적힌 것이 특징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122㎜ 방사포탄에도 '①'이라는 표기가 있었다.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쪽에서 날아와 서울을 경유한 뒤 다시 북쪽으로 비행하다가 추락했다는 것도 북한 소행으로 분석한 근거가 됐다.

이 무인기는 군의 지상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탑재된 일본제 캐논 카메라에 청와대와 광화문 등 서울 중심부가 찍혀 있었고 북쪽으로 비행하다가 파주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5P-13층
• 실평-9P
• 방향-무등산
• 대출-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5천만원
• 매매가-3천2백만원

29P-사무실 적합
• 실평-18P
• 방향-하천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2천5백만원~3천만원 가능
• 임대-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1억 정도
• 매매가-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전체 올수리
• 실평-33P
• 방향-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주거겸 사무실
• 대출-5천만원~1억원 가능
• 임대-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분양가-2억 정도
• 매매가-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녀 직원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남 4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여 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전화 상담 사절)